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원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준



회순 박순철

영광군, 설맞이 수도권 직거래 장터 행사



영광군은 지난달 23일부터 설맞이 기간에 서울정부청사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우수 농·특수산물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우리

소비자 선호 모시송편·굴비·잡곡 우수성 홍보 대도시 소비자 고정고객으로 이어지도록 마케팅

군 농·특수산물 판로를 모색하였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영광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수산물 중 소비자가 선호하는 모시송편, 굴비, 잡곡 등의 우수성을 알리고 신선한 농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 공급하여 대도시 소비자가 고정고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지난 29일에는 영광군 김준성 군수와 영광군의회 강필규의장이 서대문구 직거래 행사 현장을 방문하여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서대문구 구청장 등 행사관계자들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서 김준성 영광군수는 "영광군은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농산물유통체계개선, 농산물의 식품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며 다각적인 도농 교류를 통한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하여 영광군 우수농산물 홍보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영광=서희권 기자

자연보호광양시협 설 맞이 정화활동

유당공원부터 버스터미널까지 손님맞이 대청소

자연보호광양시협의회(회장 이홍재)는 지난 달 30일 유당공원과 5일 시장 등 손님들이 붐빌 수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설 맞이 자연보호 캠페인과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자연보호회원 30여 명은 공원과 시장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자연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는 현수막을 들고 시민의 통행이 가장 많은 버스터미널 앞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광양=김승호 기자



자연보호광양시협의회 회원들이 설 맞이 정화활동과 캠페인을 하고 있다.

제21회 백운기 전국고교 축구대회 19일 개막

광양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21회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를 오는 19일 개막한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와 광양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하는 백운기 축구대회는 지난 1월 2일부터 8일까지 8일간 출전팀 신청을 받았으며, 축구 명문고교 35개 팀이 참가한다. 오는 19일 서울공고와 영생고의 개막전 경기를 시작으로 광양공설운동장을 비롯한 5개 경기장에서 진행되며 23일까지 예선전 조별 풀리그를 거쳐 18강전부터 토너먼트 형식으로 3월 2일 토요일 11시 공설운동장에서 이번 대회 우승팀을 가리는 결승전이 열린다. 시는 선수단과 관람객의 편의와

광양=김승호 기자

순천시 겨울철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확대

중위소득 75%이하 대폭 완화
순천시는 저소득 위기가구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번 지원사업 확대범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 고위험군까지 관련부서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한 가정도 포함된다. '긴급복지 지원기준'도 지난해에 비해 대폭 완화됐다. 선정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75%이하(4인 가구 기준 346만원), 일반재산 1억1800만 원 이

순천=김승호 기자



30일 전남 장성군의 '토방(土房) 낮춤사업'이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걱정까지 덜어 주고 있다. 장성군은 무릎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토방에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마당과 토방 사이에 계단이나 경사로를 설치해 '장애물 없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성군 '토방 낮춤사업' 호평

1229가구 대상 사업 진행...2020년 완료 예정

번번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실버복지 사업으로 눈길을 끌었던 전남 장성군의 토방(土房) 낮춤사업'이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걱정까지 덜어 주고 있다. 지난달 30일 장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유두석 군수가 직접 구상했다.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던 중 토방이 지나치게 높아서 다니기 불편하다는 하소연을 듣고 사업에 착안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행으로 옮겼다. '토방 낮춤'은 무릎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토방에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마당과 토방 사이에 계단이나 경사로를 설치해 '장애물 없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사업'이다. 특히 마루가 높은 옛날식 집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 개시 3년 차에 접어든 현재 전체 설치 대상가구로 선정된 1228가구 중 455가구(37%)에 설치를 완료했다. 올해는 300여 가구에 설치를 준비 중이다. 남은 가구는 2020년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토방 낮춤 사업 설치 가구가 늘어면서 수혜자 만족도도 커지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토방 낮추기가 완료된 가구의 경우 수혜자 대부분이 큰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멀리 타지에 사는 자녀들은 토방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만습지 이른아침 무진과 함께하는 선상투어

순천시는 설 명절 순천만습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순천만의 아침전경을 체험하는 선상투어로 '2019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무진 선상투어는 1900~70년대 이 지역 출신 유명 소설가 김승옥의 작품 『무진기행』의 주무대인 안개 낀 순천만으로 이른 아침에 배를 타고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듯 가장 가까이 바라볼 수 있는 체험이다. 이른 아침 탐조선을 타고 광활한 갈대밭과 갯골을 지나 드넓은 순천만에서 피어오르는 해무와 떠오르는

순천=황경석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함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햇빛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를 위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